계획에 따라 사전준비가 철저해야 알찬 성지순례가 될 수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미리 챙기면 즐겁고 유익

출발전 전화 · 공문 통해 법당사용 등 사찰과 협의해야

성지순례 알차게 가려면

화사한 꽃망울을 활짝 터뜨린 봄,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는 직장 · 직능 단체를 비롯한 신행단체들이 많다. 4월 중반부터 5월말까지는 성지순례철이라 할 만큼 피크를 이룬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직장과 집안을 벗어나는 봄나들이쯤으로 여기는 불자들이 많다. 신행활동의 활력이 될 성지순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협조요청'

얼마나 알찬 성지순례를 보내는가는 사전준비에 달려있다. 신행단체들이 가장 곤란을 겪는 점은 순례할 성지를 결정하는 문제다.

사찰협조는 의외로 간단하다. 영월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사전에 전화나 공문으로 법당 참배나 안내, 공양 등 구체적인 협조사항을 요청하면 대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사찰의 협조 없이 무작정 성지를 찾아가는 것은 해서는 안될 금기사항. 사찰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성지순례라는 이름을 내건 봄나들이로 전락할 수 있다.

#차안에서 '발원'

성지순례를 가거나 다녀오는 차량에서의 시간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야할 시간.

순례를 갈 때는 발원문을 낭독해 순례에 대한 각오를 다지고, 순례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사전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에서는 순례에 대한 소감과 다짐을 듣는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생활 속에 회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도' 본 뜻 새겨라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다. 구도의 각오를 다지는 신행의 연장이라 할 수 있으며, 자기반성을 통해 탐진치 삼독을 걸러내는 또다른 '만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지순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낼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된다. 순례자는 스스로를 점검하고 참회와 발심을 일으키려는 마음가짐을 지녀야 한다.

서울 봉은사 포교국장 선업 스님은 "알찬 성지순례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에서부터 준비, 진행, 회향에 이르기까지 본래 의미를 가슴에 새겨야한다"고 강조한다.

#프로그램 준비 철저히

성지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단연 성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꼽힌다. 참가자들의 성지순례에 대한 만족도가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성지에 도착하면 법당에서 약식으로라도 법회를 열어 순례의미를 환기시키는 것은 필수다. 성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맨발로 숲길걷기, 명상, 좌선, 기도, 108참회 등 다양하다. 1박을 하는 성지순례라면 철야정진과 새벽예불을 체험하면 특별한 감흥을 얻을 수 있다. 스님과 차담을 나누는 기회를 갖는 것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주위에 공덕 '회향'

성지순례를 다녀왔지만 효력이 그 때 뿐인 기억을 갖고 있다면 이유는 '회향'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지순례의 공덕이 가정과 직장, 이웃에게까지 전해져야 알찬 성지순례로 남는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회향을 특별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향싼 종이에서 향내가 나듯 자연스럽게 회향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감흥과 체험을 여러 사람과 대화로써 교감하는 것으로도 회향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열린 청불회 구현할 것"

김병준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 13일 취임

김병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로써 청와대불자회는 조윤제 前 회장이 주영국대사로 자리를 옮긴 이후 생긴 2개월여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청와대불자회는 4월 13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정사 등 각 종단 대표와 윤원호 열린우리당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병준 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김병준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와대불자회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만큼 우리 사회에 불교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며 "일각에서는 청불회가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모든 회원들이 화합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열린 청불회를 구현하겠다"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회장은 또 "이론과 실천을 섭수하는 진실한 불자로 거듭날 것"이라며 "분기마다 큰스님을 초청해 수행법 강좌를 마련하는 등 회원들의 신행활동을 권장하고, 나아가 청불회가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모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법어를 통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포용과 이해, 넓은 안목을 가진 국정을 펼쳐나간다면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를 우리 사회에 구현하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국정운영을 펴는 불자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

박봉영 기자

김병준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이 4월 13일 취임했다. 청와대불자회는 '열린 청불회'를 구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박재완 기자

27일 10돌 맞는 국회 정각선원

26일 혜국 스님 초청 기념법회

입법기관인 국회. 입법, 행정, 사법 3부 가운데 유일하게 국회에는 법당이 있다. 국회 본관 지하 2층에 위치한 정각선원이 그 곳이다. 정각선원은 4월 27일로 개원 10주년을 맞는다.

정각선원은 22평 규모의 사무실을 개조,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한 도량이다. 타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5년 문을 연 이래 사무처직원과 비서관, 보좌관, 용역업체 직원 등 국회에서 일하는 불자들의 기도, 법회, 수행 등 신행근본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개원 직후에는 회원이 급격히 증가해 150여명에 달할 만큼 직원들의 불심을 하나로 규합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정각선원은 스님이 상근하지 않는 직장 도량이면서도 직원불자들이 어느 때나 찾아와 참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정각선원의 한 주축이 돼야할 국회 정각회 회원들은 거의 찾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정각회와 직원신도회를 통합해 의원모임과 직원모임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정각선원을 찾아 법문한 스님 중에는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 등 명성 있는 선사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국회정각회와 직원신도회는 4월 26일 오후 6시 20분 개원 10주년 기념 혜국 스님(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장) 초청 참선법회를 열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윤애경

국립경찰병원 불자회 부회장

국립경찰병원 불자회의 터줏대감 부회장 윤애경 간호사(45 · 사진)는 돈독한 불심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감동적인 삶을 사는 불자로 정평이 나있다. 교통사고로 19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남편을 간병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의연한 모습을 지녔기 때문이다.

"남편을 볼 때마다 힘들어서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고맙게 느껴지더라구요. 지금은 살아있는 부처님 모시고 산다고 여깁니다."

남편 19년째 간병하며
포교 · 봉사활동에 동분서주

윤애경 부회장은 병상에 누워 있는 아버지 때문에 사춘기때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고 회고한다. 그러나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는 대학생이 된 두 아이가 대견스럽다.

불자였던 윤부회장은 결혼후 남편을 따라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1987년 남편이 자리에 누운 후 다시 불교로 돌아왔다. 불교가 오랜 고향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윤부회장은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힘을 불교에서 찾았다.

"부처님전에 엎드려 '이게 내 업이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 순간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솟았어요. 부처님법을 따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처럼 밝게 웃는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윤애경 간호사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경찰병원 불자회 장직을 대행하는데다가 평소 인연을 맺었던 사찰의 부처님오신날 봉축 준비를 도우러 다녀야하기 때문이다. 근무가 없는 시간에는 어김없이 사찰을 찾아 기도하고 연잎을 만다.

누구보다 불은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윤애경 부회장. 서울 불광불교대학 2학년인 그는 요즘 병원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불교를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불교를 절실히 느끼지 못해 끌려오듯 억지로 신행활동을 하는 이들을 '망아지불자'라고 표현하는 윤부회장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법당으로 인도한다.

"많은 가피를 받아놓고 혼자 절에 가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좋은 법을 혼자 가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을 넉넉한 부처님품을 느끼게 해 주는게 제가 받은 불은과 도움을 회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봉영 기자

영호남 합동산행 … 신행정보 교류

쏟아지는 장대비도 산악인불자들의 신심을 막지는 못했다.

4월 10일 우천에도 불구하고 부산불교산악회(회장 박웅락) 주관으로 대경불교산악회와 광주자비산악회의 영 · 호남 합동산행이 통영 사량도에서 진행돼 산악인불자들의 화합을 다졌다. 이날 산행에는 불교산악인련 김진관 총재, 강갑균 부총재를 비롯 서울 금강메아리, 마창불교산악회, 양산불교산악회, 고성불교산악회 등 4백여 명이 참석했다.

1997년 11월 범어사에서 광주불교산악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1년에 1,2회 합동산행을 열어온 부산불교산악회는 이날 산행을 마치고 대경불교산악회와도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간 교류와 화합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합동산행을 계기로 부산불교산악회가 정기 산행시에 실시하고 있는 차내 법회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전망이어서, 합동산행이 지역간의 벽을 허물고 지역별 신행정보 교류에도 큰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Let's KT

구독신청 '大' 혜택 2가지

부모님은 평생구독! 자녀는 스마트폰!

졸업 · 입학 기념

아이벗의 I는 IT(information technology)와
인드라망(Indranet) 또는 인터넷(Internet)의 의미이며,
BUD는 Buddy(친구)를 뜻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드리는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최저가 특별보급

1 현대불교 영구독자 선착순 신청 1,000분께만 특별한 혜택
현대불교신문 평생구독을 신청하시면 89만 1천원의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을 무료로 드립니다. (평생구독료 62만5천원)

부모님은 평생구독 + 자녀는 스마트폰 아이벗 무료제공, 가입비 3만원 별도, 영구독자료 일시납, 18개월 의무사용

2 초기수납금 없는 최저가 24개월 무이자 할부 보급(월 평균 할부금 24,291)
현대불교신문 기존 독자와 신규독자 그리고 일반가입자분께는 24개월 의무 사용조건으로 스마트폰 아이벗(HP rw6100) 의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을 드립니다.

스마트폰 아이벗

MP3 · 카메라폰과 PDA를 하나로
휴대폰 위의 휴대폰
HP iPAQ rw61 '아이벗'

특별 보급가 아이나비 일체형 세트 880,000원
일반 구입시, 스마트폰 HPRW6100(891,000원) + 스마트폰용아이나비(484,000원)

매일 매일 쏟아지는 불교세상 - 언제나 부처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뉴스 — 실시간으로 보도되는 기사가 종합, 신행, 문화, 생활, 영상 뉴스로 나누어 제공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기자 30여명이 매일 생산하는 기사가 즉시 업데이트 되며 불교뉴스에 대한 해설, 분석 등도 함께 기사로 서비스 됩니다. 또한 문자 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불교계의 뉴스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기 주변에 있는 불교 이야기를 올릴 수 있는 기사 제보 코너가 있어 쌍방향 뉴스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 전불가코너에서는 다양한 행사 및 의식곡을 비롯해 창작 찬불가까지 서비스되며 교계 일정을 매일매일 상세히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아이벗 단말기의 첫 페이지를 재미있게 꾸밀수 있는 스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향후 벨소리, 게임 등 다양한 불교문화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법문 — 이시대의 큰스님의 법문을 문자, 영상 등으로 서비스합니다. 지상백고좌, 길을 묻는 이에게, 주제가 있는 법문은 주로 문자형태로 큰스님 가르침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방장, 선원장, 주지 스님 등 다양한 계층의 스님과 다양한 지역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법문의 경우는 영상으로 직접 큰스님의 생생한 법문을 접할 수 있습니다.

e-BOOK — 불교계 최대 온라인 책방 여시아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불서 정보를 서비스합니다. 신간,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여시아문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E-BOOK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교양대학 — 크게 불교학 강의, 경전 강의, 문화강의로 나누어 다양한 강좌를 들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영상과 문자로 강의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대학에 등록하지 않아도 전국의 유명 강사와 스님의 명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문화강의는 불교미술, 다도, 꽃꽂이 등 다양한 강좌들을 서비스 할 예정입니다.

커뮤니티 — 아이벗 불교정보서비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아이벗 단말기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제공하며 향후 사이버기자와 문화지킴이 등 자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이버법당 — 매일매일 하루를 경책하는 경구를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자로서 가져야 할 예절과 기초 교리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향후 자신이 속한 사찰의 스님이 직접 신도들에게 직접 사찰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등접수, 기도 접수 등 사찰의 다양한 종무행정도 함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불교문화샵 — 온라인 불교 쇼핑몰인 마하몰에서 제공하는 불교문화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아이벗(I-BUD)사업단 전 화 : 02)735-3034, 737-8881 / 팩스 : 02)738-3034 www.buddhanews.com / www.buddhapia.com